



위제트 작 'Bomb the city'



광주신세계갤러리는 광주신세계 30주년을 기념해 '스트리트 아트'를 모티브로 한 기획전 'Street of Summer'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다. 제이 플로우 작 'PARADE #1'

# 무더운 도심, 시원한 예술 초대

## 'Street of Summer'

광주신세계갤러리 30주년 기념전 9월 1일까지 작호·김홍식 등 참여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다. 여름은 더워야 '여름답다'라고 하지만 불볕더위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전시를 찾아 갤러리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특히 기존의 관념이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이색적인 주제의 전시나 상상력 가득한 작품을 보노라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가기 마련이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 'Street of Summer'. 지난 11일 개막해 오는 9월 1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한창 무더운 시기에 관람객들을 향해 건네는 '시원한 예술 초청장'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신세계 30주년을 기

념해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불거리 또한 풍성하다.

주제가 말해주듯 '스트리트 아트'는 지난 1960년대 후반 뉴욕의 하위문화에서 태동했다. 시대에 대한 저항, 주류 문화와 제도권에 대한 반발이 예술과 상업 분야에까지 침투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디제잉, 브레이크댄스, 스케이트보드, 거리 패션 등과 '스트리트 컬처'라는 감성을 이끌어왔다.

스트리트 아트의 시작은 젊은 청년들이 거리에 서명과 표식을 하는 라이팅(writing)에서 시작했다. 이들에게 스프레이나 마커는 주요한 도구였다. 이 같은 행위는 이내 새로운 문화현상을 낳았고 '그래피티'(Graffiti)로 불렸다.

젊은이들은 서명이나 캐릭터를 브랜드화해 그들만의 개성적인 문화를 꽃피웠고 한 시대를 풍미했다. 80년대 대표 작가는 장 미셸 바스키아와 키스 해링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아이론을 매개로 거리 예술을 중심 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1990-2000년대에는 뱅크시 등이 '스트리트 아트'라는 이름으로 화제를 몰았으며 2010년대에는

도시적 환경과 스트리트 감성을 접목한 '어반 아트'라는 트렌드를 낳았다. 나아가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를 또한 다채로운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거리의 하위문화는 주류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저항이 제도로 편입되는 현상은 또 다른 방식의 저항과 표현을 낳음으로써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작가들과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고루 참여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 COMBO(폴드원, 헤그)를 비롯해 조선대를 졸업하고 전주에서 활동하는 ZAKHO(작호), 그리고 수도권에서 활약 중인 김홍식, 모스플라이, 위제트, 제이플로우, 지알원 작가들이 그들이다.

모스플라이의 'Serious Boys'는 그림인 듯 낙서인 듯 자유롭게 그린 작품이다. 그림 속에는 사람도 등장하지만 닭이나 다른 동물들도 사람의 형상으로 분장해 있다. 만화 같기도 하고 작가의 상상 속에 드리워진 환상적인 장면 같기도 한데, 이

를 모두 일련의 소년들로 치환했다는 사실이 유머러스하다.

작호의 'Bomb the city'는 위험한 상황을 희극적으로 표현했다. '도시를 폭파하다'라는 의미는 도시 자체가 아닌 도시가 환기하는 부조리, 불의, 복잡성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가온다.

익숙한 이미지를 차용해 장난스럽고 유희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선보이는 작호의 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래피티를 토대로 회화,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횡단한다. '호작도'에는 까치와 호랑이가 나오는데, 두 동물의 모습은 가까운 듯 멀기도, 먼 듯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작품 곳곳에 투영된 작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해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기존의 회화들과는 결이 다른 스트리트 아트 작품들은 보는 이에게 신선한 감성과 상상력을 선사한다"며 "전시장에 둘러 다양한 작품이 전하는 생동감과 개성적인 사유, 메시지 등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스플라이 작 'Serious Boys'



김혜순 시인



죽음의 자서전 번역본

## 김혜순 '죽음의 자서전' 독일HKW 국제문학상

김혜순(70) 시인이 시집 '죽음의 자서전' 독일어 번역본(제목 'Autobiographie des Todes')으로 아시아인 최초로 독일 세계 문화의 집(HKW)이 수여하는 국제문학상(Internationaler Literaturpreis) 수상자로 선정됐다.

HKW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열어 올해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 6명 가운데 김혜순을 수상자로 호명했다. 다른 최종 후보는 튀르키예의 도안 아칸르, 캐나다의 세라 번스타인, 우크라이나의 인나 멜리코바, 프랑스의 네쥬 시노, 미국의 제스민 워드였다.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김혜순을 수상자로 지목했다. 위원들은 "김혜순 시의 경이로움 속에서 의미는 종종 불가사의함 속에 명확히 드러난다"며 "그 시편들은 리듬을 따라 반복해서 읽을수록 열리고, 이미지는 이미 올바르게 선택한 뒤에 야만 비로소 보이게 되는 방향처럼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에 있는 김혜순은 독일에서 열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화상으로 "번역자 박술과 올리아나 볼프, 심사위원들, HKW, 출판사 피셔의 대표 포겔과 편집자 마들렌, 그리고 낭독 행사를 기획한 시 문학관의 마티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상은 작가와 번역자에게 공동으로 수여되는 것이어서 대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시집을 번역한 박술(39)·올리아나 볼프(46) 번역가도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시집은 앞서 영어로도 번역됐고 김혜순은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캐나다의 문학상인 '그리핀시문학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 잃은 꼬끼리 코바'

한 손엔 용기를, 한 손엔 상상을 쥐고 떠나는 여름방학의 작은 모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병규·ACC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2025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ACC'를 마련했다. 어린이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우수 어린이 공연 2편을 통해 환경과 기술, 사람을 주제로 공존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해 따뜻하게 질문한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오는 19일(오전 11시·오후 3시)과 20일(오후 2시) 무대에 오르는 '코 잃은 꼬끼리 코바'. 사자에게 코를 잃은 아기 꼬끼리 코바

## 한 손엔 용기를... 한 손엔 상상을...

ACC재단, 19~20일·8월 2~3일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in ACC'

가 걸모습이 다르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홀로 서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이야기꾼의 따뜻한 목소리와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지고, 옷방 속 옷가지와 신발, 옷걸이들이 커다란 초원의 동물로 변신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함께 통통 뿔 수 있어!"라고 말하는 이



'내가 처음 만난 우주'

무대는 용기와 우정을 배우는 시간이다. 3세 이상 관람 가능, 관람료 1만5000원.

두 번째 공연은 8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스페인 극단의 해외 초청작 '내가 처음 만난 우주'.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기와 보호자를 위한 감각 몰입형 공연으로, 광활한 우주로 변신한 무대

위에서 사람과 사물, 움직임이 '첫 숨결'이 깨어나는 순간의 경이로움을 표현한다. 손끝으로 만지고 눈빛으로 느끼며, 함께 숨 쉬고 흔들리는 이 공연은 처음 세상을 마주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어줄 것이다. 관람료 2만원. 예매와 자세한 정보는 ACC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ACC재단 김병규 사장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이 함께 공연을 보며 마음을 나누고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삶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이번 무대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따뜻한 여운을 남기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 조예은 각화문화의집, '몸으로 톡톡, 마음으로 쿵쿵!!'

예스24 선정...2위 백은유 작가

조예은 작가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에서 1위에 선정됐다.

예스24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조 작가가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서 1위에 올랐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는 첫 작품을 낸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독자 44만345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작가는 조사 결과 5만7487표(8.7%)를 얻었다.

그동안 조 작가는 날카로운 문체와 개성적인 세계관으로 문단과 대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카테일, 러브, 쏘비', '트로피컬 나이트' 등



조예은 작가

대표작은 호러와 스릴러 붐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카테일, 러브, 쏘비'는 구성의 탄탄함과 특유의 호러 스릴러가 다양한 빛깔로 존재감을 드러낸 작품이다.

2위는 4만7310표(7.1%)를 얻은 백은유 작가가, 3위는 4만2176표(6.4%)를 얻은 김화진 작가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조 작가는 "좋아하는 마음이 동력이 된다"며,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이라며 "이만큼 유치하고 단순한 제가 입체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오로지 읽어주시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월 9일~10월 25일 매주 토요일

연극과 움직임으로 가족 간 소통의 문을 열어보자.

광주 각화문화의집이 오는 8월 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가족단위 예술교육 프로그램 '몸으로 톡톡, 마음으로 쿵쿵!!'을 운영한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가족 간 유대와 감정의 언어를 예술로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202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광주시가 주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과 무용을 융합한 참여형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빛과 음악, 색, 그림자 등의 감각적 매체를 활용한 연극놀이와 움직임 활동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프로그램은 연극의 핵심 요소인 '타인의

감정 이해'에 초점을 두고, 경험과 공감을 키우는 활동들로 채워졌다. '색깔로 감정 탐색하기',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움직임 놀이', '역할극과 즉흥극 체험', '가족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발표회'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회차에는 가족별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내는 '우리 가족 이야기 공연'이 열려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가족단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10가족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 신청은 각화문화의집에 문의하면 된다.

각화문화의집 오은정 담당자는 "몸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경험이 가족 간 이해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며 "예술을 통한 감정 소통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가족문화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